

창덕궁 후원의 경관에 관한 소고
- 정조의 “상림십경(上林十景)”을 중심으로 -

이수학

조경공방 나무

An Interpretation of Landscape of Ch'angdŏk Palace Rear Garden
- Focused on the King Jŏngjo's "Sangrimshipkyŏng" Poem -

Yi, Soo-Hag

Landscape architecture atelier Namoo

ABSTRACT

The rear garden of the Ch'angdŏk Palace is considered to be representative of gardens of the 15th century to the end of Chosŏn Dynasty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is very well preserved. Therefore with its long history, it's been represented in various way. This study tried to interpret the rear garden of the Ch'angdŏk Palace in terms of 'text' through king Jungjo's "Sangrimshipkyŏng".

Jungjo's "Sangrimshipkyŏng" that describes scenery related to ten places of the rear garden of the Ch'angdŏk Palace was written when he was a crown prince. And the scenery of ten places can't be separated from their physical looks and those ten places were quite different from now. For that reason, to begin with, this study recomposed those ten places through maps and drawings that revived the current looks and rear garden. And what poems tried to tell and what meanings they had in the literacy of that age that allowed "poem enchained ten scapes" were studied in the context of co-relationship with space.

As a text it is very ancient and questions arise on how to correctly interpret the information it holds. But this interpretation is only one side of the various aspects that the rear garden of the Ch'angdŏk Palace has compared to its long history. In light of the present age an interpretation can have richer and more varied meanings, creating many new viewpoints.

Key Words : Sangrimshipkyŏng - poem of enchained ten scapes, construction of landscape, construction of space, text, interpretation

I. 창덕궁 후원과 정조의 상립십경 시

1. 하나의 텍스트로서 가능성

'텍스트란 코드들의 무한한 역동성으로, 코드들의 유희는 다양한 의미를 가능케 하는 두꺼운 언어를 생산하도록 해준다. ...텍스트란 코드들의 생산적 교차점이다.'¹⁾ 텍스트란 의미를 지극히 문학적인 제한된 범위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를 '인간의 행위는 하나의 집적적 텍스트'²⁾라는 입장을 - 물론 이것도 문학적 논의 안에서 나온 말이지만 - 옹호한다면 우리는 문학의 이러한 논의를 좀더 융통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해석의 상대적 입장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좀더 간단하게 '연구와 사교의 대상'³⁾으로서 바라본다면 텍스트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를 조금 비껴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을듯하다. 왜냐하면 조정에서 과연 이러한 텍스트 - 하나의 이론적 틀로서 - 라는 것을 굳이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창덕궁 후원을 하나의 텍스트로서 읽으려는 이유는 그것이 해석의 상대적인 위치 즉, 해석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대상으로 텍스트는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와 그 가치체계를 찾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텍스트가 계속 유효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해석학적 순환'⁴⁾이라는, 끝없이 변하고 있는 역사 속에서 거듭 읽혀지고, 새로운 해석이 추가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텍스트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여기서 창덕궁 후원은 이러한 관계의 유보적 상황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으로 창덕궁 후원을 접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하는 문제와 후원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일차 자료 - 이 또한 독립적인 텍스트인 - 를 어떻게 엮어서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유형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그 각각이 다른 인식적 작용을 거쳐서 상이한 재현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꼭 그것이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해석의 대상으로서 창덕궁

후원의 무엇을 대상으로 작업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것을 어떻게 읽어들이어서 이해 가능한 의미체계를 형성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관의 해석이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뜻하는가?

2.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창덕궁 후원은 정확히 세 가지의 재현 방식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재현된 정원⁵⁾과 더불어 시와 다양한 기문을 통한 문학적 재현⁶⁾ 그리고 동궐도와 또 다른 그림⁷⁾으로 재현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재현들은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의 독립적인 텍스트의 기능을 또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창덕궁의 건설과 함께 만들어지기 시작한 후원은 그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과거를 숨기고 있어서 어떠한 형식으르든 후원에 관한 연구는 그 범위를 제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정조에 의해서 쓰여진 '상립십경'⁸⁾이라는 시를 가지고 후원에 대해서 논하려 한다. 긴 시간의 흐름 속에 절개된 한 단면으로서 시간을 제약했을 때, 물리적 실체로서 후원의 공간 구성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뿐 아니라 십경으로 묶이는 열 편의 시는 우리에게 후원의 다양한 모습을 전해줄 수 있으리라 본다. 더욱이 시라는 것이 시인이 바라보는 세계나 사물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언어의 형식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때, 이 시가 가지는 의의는 시인이 시를 통해서 그리고자 하는 세계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들을 내포하게 된다.

3.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재현된 하나의 정원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또 끊임없이 변모해 갔던 공간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우선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어느 특정 시기의, 특정한 공간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현재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바로 그러한 공간을 재구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덕궁 후원의 현재 모습이 그 단초가 되었지만 당시의 모습 자체는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정원과 그림

으로 재현된 정원 사이의 상호 관계 속에서 과거의 공간을 복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재구성된 공간은 시가 쓰여졌던 장소에 대한 물리적 조건을 만들어냄으로 해서 우리는 또 다른 텍스트인 시를 해석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켜주게 된다. 이러한 공간은 현재의 공간과 상호 관계 즉 상호 텍스트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시 자체는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 경관에 대한 지극히 자연과학적인 방법과는 거리가 있다. 또 문학에서 시를 해석하는 방식하고도 차이가 있다. 이것을 무엇이라 규정하기 이전에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중간, 즉 객관적 시각과 주관적 시각의 중간쯤에 위치 지워놓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라는 재현방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주관적인 시선이 만들어낸 경관과 물리적인 장소가 가지고 있는 경관의 상호작용 속에서 '상림십경'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의 관점은 거기에서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읽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사진 1. 관풍각 추정지와 근농장이 있던 창경궁 춘당지

II. 열 개의 시와 서로 다른 열 곳

1. 관풍춘경(觀豊春耕)

1) 공간

이 지역은 후원에서 가장 낮은 곳인 동시에 넓은 평지를 이루는 곳으로 지금의 창경궁 춘당지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그려진 동궐도행 평면도를 보면 이때까지도 근농장과 위쪽의 방지는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관풍각은 보이지 않는다. 정조기 십경시를 쓰던 당시의 모습을 동궐도를 참조로 그려보면, 11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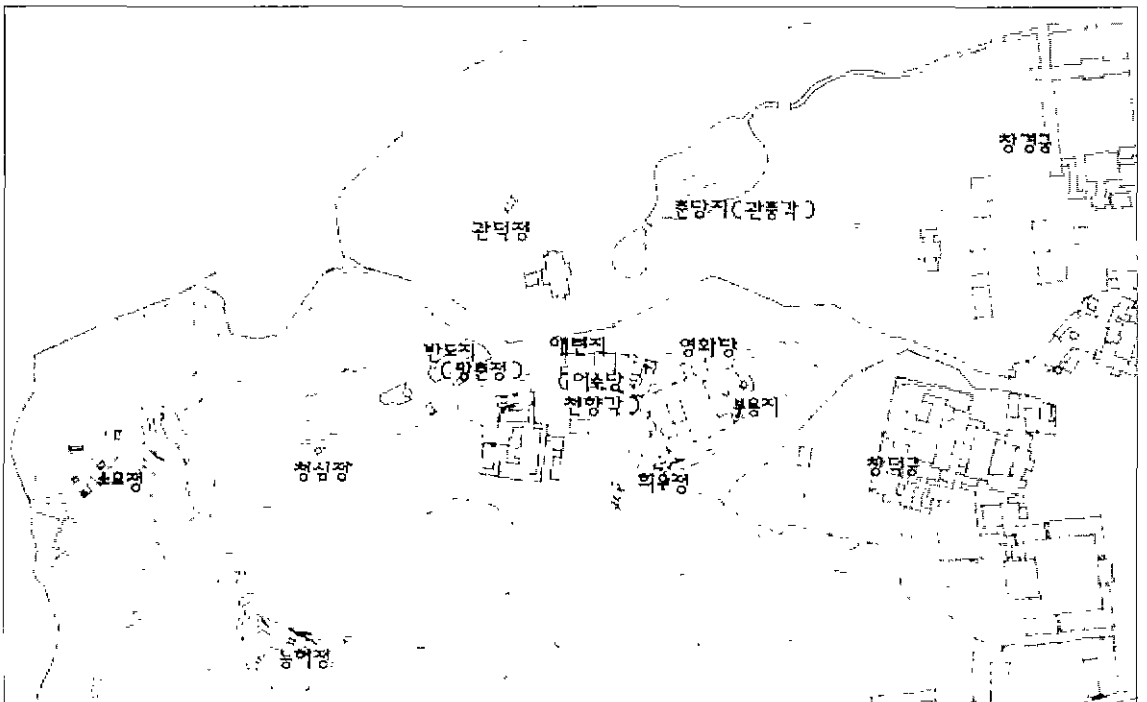


그림 1. 현재의 창덕궁 후원과 창경궁 일부에서 보는 상림십경의 위치

()안의 건물은 지금은 없다

방향의 논과 그 사이를 흐르는 어구를 가로질러 관풍각이 있고 그 앞쪽에 방지와 초가가 있다. 이 그림 속에서 정자의 기둥이 만들어내는 틀 가득히 근농장의 논이 들어오는 것을 그려볼 수 있다.

2) 시

비둘기 새끼 날개 펴고 어미따라 우난다,
물은 공전(公田)에 가득하니 논갈이 시작하누나.
제왕은 본래부터 가색(稼穡)에 근간(勤幹)해야 하므로,
보기당(寶岐堂) 아래에서 가을 추수 고한다네.

시가 이야기하는 계절은 봄이다. 제목은 '관풍각의 봄갈이'이지만 정자의 뜻과 맞물려 생각하면 '봄갈이의 풍요로움을 본다'가 된다. 당시 경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벼농사였다는 사실에 미루어 보면 국가를 통치하는 왕으로 그 해의 농사 상황을 직접 지켜보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중요성은 전해지는 시에서도 알 수 있다. 숙종, 영조, 정조, 순조를 거치면서 모두 일품편의 시가 차례로 전



사진 2 근농장이 있던 창경궁 춘당지

하고 있는데 이 시들을 살펴보면, '백성의 농사를 중히 여김은 열조(列朝)가 같았나니 / 지난날을 계승함도 오직 농사에 있다네.'⁹⁾ 에서 농사의 중요성을 모든 왕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말을 하며, '풍각(豊閣)에 올라가 벼 수확 구경하네.'¹⁰⁾ 라고 매해의 농사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벼 베는 소리 질질하여 날알이 천백(千百)이라네.'¹¹⁾ 또, '동방의 풍열(豊熟)을 비나니 / 저 구름같은을 보아라, 그 수확은 억백(億百)이라네.'¹²⁾ 라며 풍년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경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풍경이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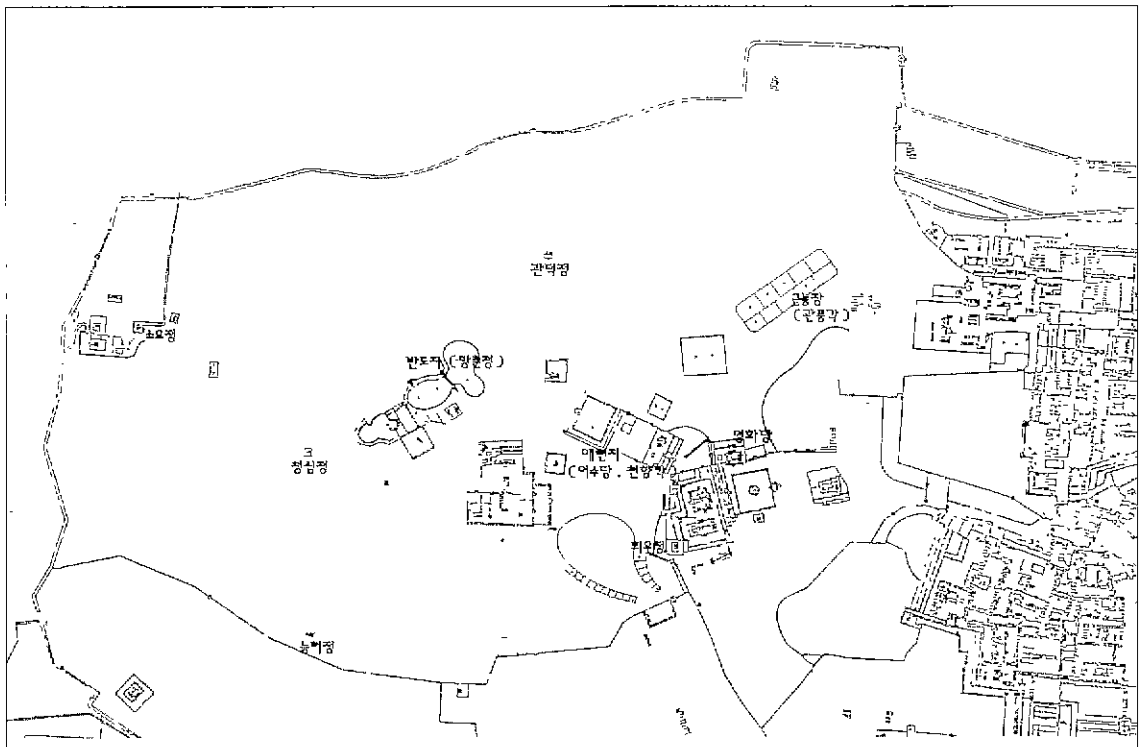


그림 2 동길도형 평면 내에서 상림십경 위치

라는 순수히 미적인 것만이 아니라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만들어낸 풍경 자체가 하나의 경관적 대상이 되고,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전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망춘문앵(望春聞鶯)

1) 공간

망춘정의 위치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궁궐지에서 밝히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개략적인 위치를 잡는다면 편우사와 존덕정을 둘러싸고 있는 반월지 부근일 가능성이 제일 높는데 그것은 궁궐지에서 위치를 서술하는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¹³⁾. 이 가설을 가지고 망춘정 주변인 지금의 반도지 지역을 재구성하면, 동궐도에서 보이는 이 곳은 인조 연간에 개발이 끝난 곳으로, 지금의 편우사에 또 하나의 건물이 붙어 있고, 승채정의 자리에 초정이 있다. 존덕정은 그대로이며, 그 위쪽으로 태청문(太淸門)과 담장으로 인해 반월지의 공간과 외부 공간을 구분 짓고 있다. 특히 지금



사진 3. 망춘정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현 반도지

의 반도지는 모두 세 개의 방지와 하나의 반월형못과 또 하나의 원지원도(圓池圓島)로 이루어져 있다.

2) 시

유사(遊絲)와 분점(粉蝶) 개인 봄 희롱하는데,
나무 그늘 짙은 곳에 피꼬리 우네.
철새가 저 혼자 우는 것도 조화일진데.
인천(仁天)의 위육(位育)은 성인의 마음 같다네.

시가 이야기하는 계절은 봄이다. 정자의 이름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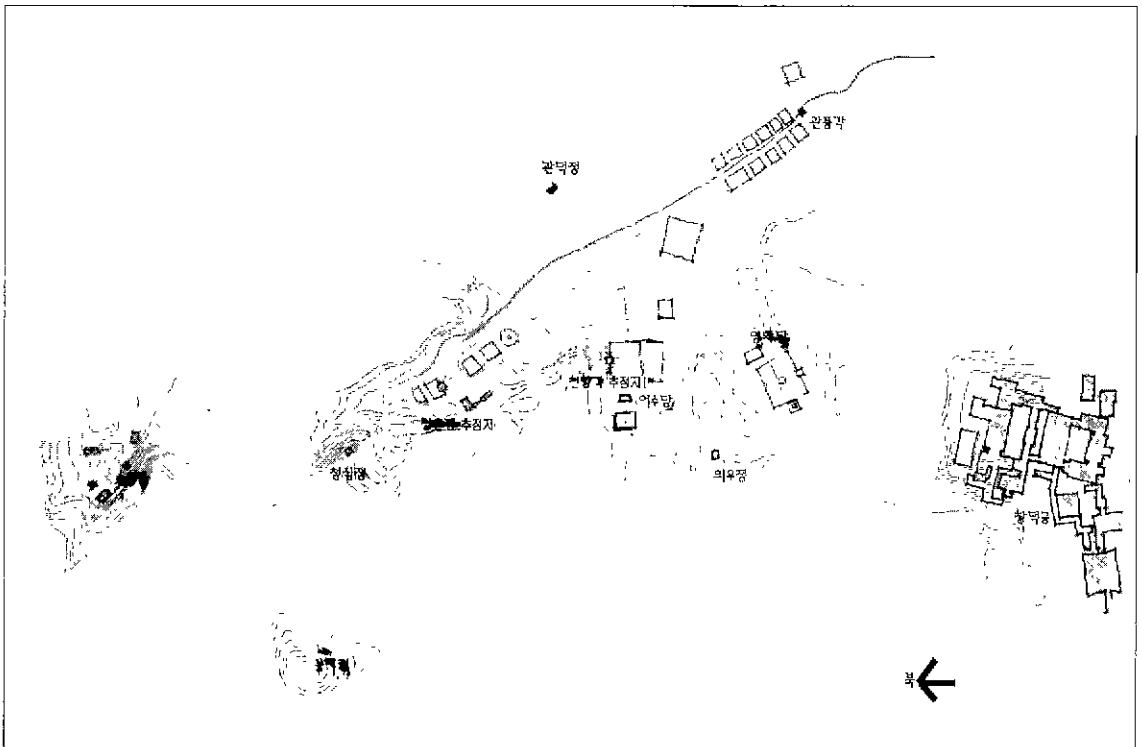


그림 3 재구성한 1767년 경의 창덕궁 후원 내 상림십경 위치와 추정지

봄을 기다린다. 혹은 봄을 바라보는 것. 봄을 기다리면서 바라보게 되는 풍경과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정조는 무엇을 보았는가? 먼저 그는 그가 바라보고 있는 풍경 - 자연 - 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세 채 구로 넘어가면 이러한 자연 풍경은 그저 눈에 들어오는 자연이 아니다. 풍경 그 너머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너머 사물의 의미를 정조는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자연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를 나누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자연을 통해서 규율과 사상을 만들어 나간 것에 미루어 보면 이러한 새소리와 나비의 몸짓 하나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닌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보았던 경관은 봄이라는 계절이 주는 자연의 풍광이지만 화자는 그 너머에 있는 우주의 법칙과 삶의 자세를 보는 것이다.

3. 천향춘만(天香春晚)

1) 공간

천향각의 위치도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궁궐지의 서술¹⁴⁾과 조선왕조의 실록¹⁵⁾에 따르면 어수당이 있는 애련지 지역으로 추정되며, 궁궐지의 서술대로라면 천향각은 이 일대가 내려다 보이는 능선의 어디쯤에 위치해 있게 된다. (후술할 천향각에서 내려다보이는 애련지 지역의 공간 설명은 다음의 '4. 어수범주 1) 공간'을 참조할 것.)

2) 시

춘당(春塘)의 계획(붉은 원양새)은 아주 서로 좋아하는데,

풀은 이끼 같고 매들까지 연가 같네.

행자궁(杏子宮)의 궁녀들 분주히 길을 끼고 가는데,

선향(仙香) 한 줄기가 바람을 타고 양천(陽天)에 풍기네.

시가 이야기하는 계절은 봄이고, 저녁 때 이다. 그리고 이 시의 경관은 향기이다. 그것은 시가 쓰여진 정자의 이름과 시의 제목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뛰어나게 좋은 향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시속에 있다. 기승전결로 이어지는 칠언절구의 절구에 해당하는 마지막 줄에서 좋은 향기가 온 천지에 풍기므로 해서 우리에게 남겨지는 여운은 은은히 퍼져오는 향기에 취해버린 모습이기 때문이



사진 4. 천향각 있었다고 추정되는 현 애련지 지역

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향기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향기든지 천향각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 향기 사이로 보이는 풍경들에서 봄이란 연두빛의 풀과 이제 막 솟털을 드러내기 시작해 하늘거리는 연기같은 버드나무 가지의 흰눈, 후원의 못에서 키우고 있는 원앙 그리고 아마 봄옷을 입고 있었을 바빠 움직이는 궁녀들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아주 세밀한 봄 풍경의 묘사로부터 드러나는 봄 향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향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향기가 풍겨오는 어떠한 전경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4. 어수범주(魚水泛舟)

1) 공간

동궐도에서 보이는 이 지역은 연경당, 애련지, 위쪽의 방지인 어수지와 그 사이에 어수당이 있고, 기오현과 의두각은 이름은 다르지만 지금과 같은 모습의 역안거와 운림거가 보인다. 그리고 어수지의 외각에 '기'자의 담장이 보이고, 금마문 앞쪽으로 또 다른 방지인 불로지가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정조의 십경시가 쓰이던 당시와 동궐도의 모습은 달랐다. 그 이유는 애련지의 남쪽에 있는 기오현과 의두각은 1827년 순조 때 만들어졌으며, 또한 동궐도에서 보이는 연경당의 모습은 1828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이전에는 진장각이 있었다. 그래서 십경시가 쓰이던 때의 이 지역은 어수당과 어수지, 애련지와 애련정 그리고 불로문과 불로지가 어우러져 있는 공간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공간이 우리가 지금처럼 인식하고 있는 연경당의 앞마당이 아니라 바로 어수당을 중심으로 방지들이 앞 뒤로 놓여져 있으며, 담장과 주변의 산에 의해 둘러싸여진,

적절히 차폐되고 또 열려 있는 공간으로서 전모를 가지게 된다.

2) 시

물 다습자 고기 습는데 해는 길기도 히네,
붉은 닛줄 거두지도 않고 연엽주(蓮葉舟) 띄우도다.
미가(米家)¹⁶⁾의 서화는 산갈이 쌓였으나,
넉넉히 봄바람 얻었으며 마음껏 놀아보자.



사진 5 어수당 추정지 - 뒤로 애련정과 애련지가 보인다

시가 이야기하는 계절은 봄이다. 어수당은 앞뒤로 못이 있어서 배를 띄워 놀기에는 그지없이 좋았을 것이다. 동궐도에 보이는 부용지에 배를 띄워 논 것이나 기록에 미루어¹⁷⁾ 이러한 행위는 후원에서 놀이의 한 전형인 것을 알 수 있다. 시에서 보여주는 것은 먼저 배를 띄우는 행위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다음에 왜 배를 띄웠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가의 그림이 산처럼 쌓여 있는, 아니면 이것은 어수당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미가의 그림만큼 아름답다는 이야기인지 불명확하지만, 단지 풍경을 바라보는 행위로가 아

니라 직접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몸으로 즐기는 것. 다시 말해 경관을 인식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 승경이 되는 것에 다름 아닌 것. 그런 뜻에서 '놀아보자 (漫遊)'가 의미하는 것은 풍경 자체에 대한 것이기 보다 경관에 대한 행동방식 또는 그것을 마주한 행위의 의지를 의미한다.

5. 소요유상(逍遙流觴)

1) 공간

후원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옥류천 지역은 인조 연간에 개발이 완료된 곳이다. 그리고 이후로 뚜렷한 변화의 기록이 보이지 않으며, 단지 몇몇 정자의 이름이 바뀌고, 소요정이 영조 연간에 개축이 되었을 뿐이다. 이 지역은 소요정과 소요암, 청의정과 앞은 방지, 태극정, 취한정, 어정 그리고 농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정자들이 들어선 곳을 주변의



사진 6 옥류천 초입에서 본 소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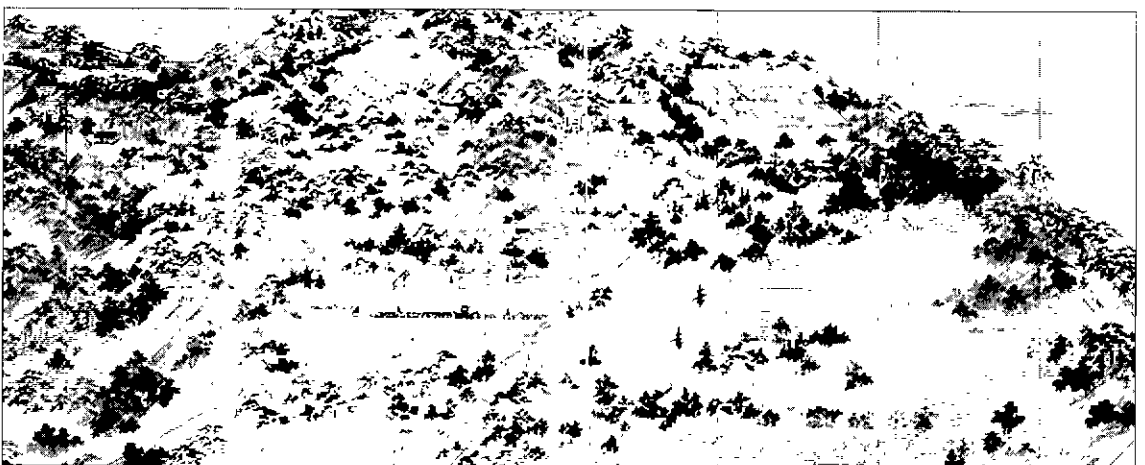


그림 4. 동궐도 - 여기서 망춘정과 천향각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산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사이로 옥류천이 관통하고 있다. 각기 다른 형태와 규모의 정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공간은 엄밀히 보면, 입구에서 있는 취한정과 뒷쪽의 농산정 그리고, 좀더 깊숙한 곳에 있는, 소요정에서 시작되는 그 안쪽의 공간이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취한정을 지나 안으로 조금만 들어서서 소요정에 올라서면, 옥류천 공간을 감싸고 있는 산들을 배경으로 이 세 개의 정자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소요암과 폭포, 어정, 그리고 태극정과 청의정, 그 사이를 흐르는 작은 시내와 깊숙한 계곡을 한눈에 볼 수 있다.

2) 시

옥을 씻은 듯한 청류(清流) 구비구비 긴데.
 난간에 가까운 산 빛 신량(新涼)¹⁸⁾을 안았네.
 호량(濠梁)에는 전부터 관어(觀魚)의 즐거움 있나니.
 난정(蘭亭)의 술잔에 대신할 만하다.
 시가 이야기하는 계절은 가을이다. 시의 처음 두 구



사진 7 소요정에서 보는 옥류천 풍경

는 소요정에서 보이는 승경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먼저, 이 지역을 흘러내리는 옥류천 - 옥을 씻은 듯한 파란 물이 흘러내리는 - 에 대해서, 다음에는 정자의 난간과 기둥이 만들어내는 틀 속으로 들어오는, 소요정을 둘러싸고 있는 초가을 산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물과 산이 어울려서 만들어내는 초가을의 옥류천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의 두 구에 있다. 정조는 여기서 장자의 고사¹⁹⁾와 왕희지의 난정에서 곡수연²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의 제목이 의미하는 소요(逍遙)란 장자 첫 머리에 나오는 소요유(逍遙遊)²¹⁾에서 따온 것으로 시 속에서

역시 장자를 빌어왔다. 그런데 왜 이러한 빌어옴이 필요한가? 이것이 가지는 경관적인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중국에 대한 모방이라기 보다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가치에 빚대어 소요정의 경관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얘기하려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²²⁾.

6. 희우상련(喜雨賞蓮)

1) 공간

동궐도에서 보이는 이 지역은 지금의 모습과 그렇게 차이가 없다. 그런데 정조가 시를 썼던 1767년, 영조 연간 당시에는 주합루, 서향각 그리고 제월광풍관이 세워지지 않았다. 또 1776년경에 그려진 규장각도²³⁾를 보면 부용정은 지금과 다른 형태의 정자인 택수재²⁴⁾가 보인다(그림 3). 이렇게 보면, 1767년 당시의 부용지 구역은 영화당을 기준으로 해서 능선으로 둘러싸여진 안쪽에 택수재와



사진 8. 희우정

사정기비각, 방지가 있고, 그 북쪽, 언덕에 희우정이 있게 된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면 당시의 부용지 지역은 현재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 되는데, 여기서 희우정은 지금과 같이 서향각에 의해 시야가 막힌 구석진 곳이 아니라 이 공간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가진 위치에 있게 된다.

2) 시

푸림새 없이 천연 그대로인데.
 때때로 반가운 비를 뚝고 향기 전해오네.
 천고의 주렴계가 꽃을 사랑할 줄 알아.
 화사 엮어 오래도록 전하려 했대네.

시가 이야기하는 계절은 여름이다. 희우상련의 시 구조는 앞의 시 소요유상과 같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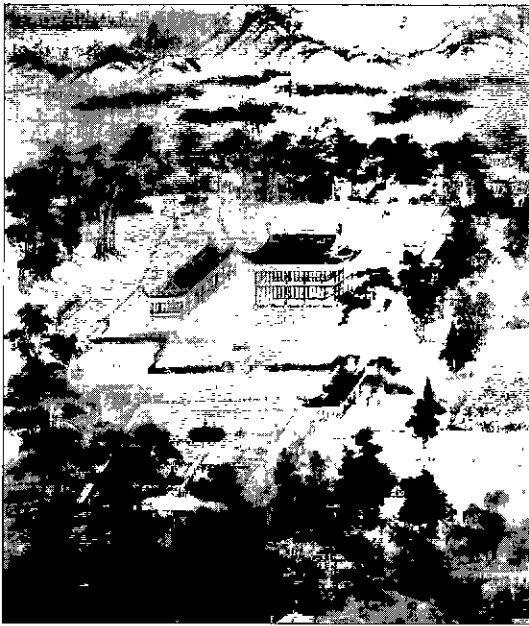


그림 5 규장각도

서 유심히 보아야할 것은 바로 두 번째 구²⁶⁾이다. 인조가 초정을 지으면서 취향정(醉香亭)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아마 이곳의 향기에 취할 만한 정자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희우정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 이 정자가 가지고 있던 경관의 주요 요소는 '향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숙종 때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내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계기로 정자의 이름이 바뀌게 되고²⁶⁾, 이후로 이 정자의 경관적 의미 역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정조는 희우정의 경관을 노래하면서 숙종이 가졌을 특별한 비의 즐거움을 비 내리는 하나의 풍경으로 일반화시키고, 이러한 비를 뚫고 전해오는 연꽃 향기를 노래함으로써 해서 과거 희우정이라는



사진 9. 희우정의 앞쪽 서향각에서 바라본 부음지 전경

장소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경관을 고스란히 살려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빗속을 뚫고오는 부음지의 연꽃 향기만을 맡는 것이 아니라 인조에서 정조까지 이백 여 년의 세월을 건너오는 시간의 향기도 동시에 맡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희우정의 승경이 주렴계가 그러했듯이 오래도록 전해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7. 청심제월(淸心霽月)

1) 공간

청심정과 앞쪽의 빙옥지는 동결도와 오늘날의 모습에서 아래쪽의 태청문을 제외하면 별다른 차이가 없듯이 1767년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본다. 반월지 지역과 청심정 사이에 이 태청문이 있음으로 해서 두 공간은 지금보다 훨씬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강했으리라. 청심정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의 특징은 정자가 자리잡고 있는 위치가 후원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에는 그리 높지 않은 사면의 기슭에 위치하고 있지만, 반면에 이 위치는 반월지 지역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자리이기도 하다. 또 다른 하나는 정자 앞의 작은 뜰에 놓여져 있는 석지이다. 비록 석지의 크기는 작지만 그것은 정자와 방지리는 후원 공간의 한 형식인 완결된 공간 구조를 이루고 있다.



사진 10. 청심정과 빙옥지

2) 시

이 마음과 밝은 누가 더 맑은가,
 때마침 동림(東林)에 제월(霽月) 오름을 만났구려.
 안방에 처해서 그윽함에 가림은 그림과 같은 것,
 한 하늘 아래는 결단코 똑같이 밝아야 하는 거러오.

우리는 먼저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공간(時空間)을 그려보기로 하자. 시각은 밤이며, 우리가 시를 통해서 달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가을이었을 것이



사진 11. 청심정에서 바라본 빙옥지와 주변 풍경

다. 그리고 후원에서 조금은 깊이 들어가는 반월지의 언덕 위에 있는 청심정, 이 곳에서는 건너편 언덕인 동림이 보이는 외진 자리이다. 주위는 모두 어둠 속에 잠겨 있는 숲 속의 정자, 여기서 시인은 눈에 보이는 어떤 외부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주변을 감싸고 있는 어둠이 만들어 내는 밤기운을 본다. 이들은 보이지는 않으나 엄연히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려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같은 것이고, 그것의 관계는 다름 아닌, 또 다른, 나와 타자의 관계가 되고, 그 타자란 바로 자연이다. 정조 즉 시인은 여기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는 이 양자의 맑음에 대한 우위를 가려보려 하는 어떤 긴장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팽팽한 긴장 속에 갑자기 외부 조건이 바뀐다. 달이 떠오른 것이다. 이 조건의 변화는 시인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일시에 바꾸어 버리면서, 시인은 비로소 밖을 보게 된다. 나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놓여있던 모든 것들이 달빛 아래 흰히 드러나는 한 순간을 시인을 목도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시인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자신은 정자라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마음의 공간 안에 갇혀 있고, 밤기운인 자연은 달빛을 받으며 저 건너에 그저 환히 맑아져 있는 것을. 바로 그것, ‘한 하늘 아래 똑같이 밝아야 한다(一天之下定同明)’는 사실, 거기에 나와 타자의 관계는 무의미해져 버리고, 나는 방안에 걸린 하나의 그림처럼 여전히 어둠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히 앞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앞서 ‘어수범주’에서 이야기했던 직접 그 승경 속으로 들어가 그 자신이 승경이 되어

버리는 또 다른 인식과 행위의 모습을 보게된다. 바로 이러한 모든 인식의 과정과 행위가 청심정이 가지고 있는 경관이 모습이고, 그것은 청심(淸心)이라는 정자의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추상적인 요소가 시각적인 경관 요소와 만나면서 화학작용을 일으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경관이라는 것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인식하는 것 사이에서 전혀 다른 경관의 의미로 전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8. 관덕풍림(觀德楓林)

1) 공간

장원봉 그루터기에 있는 관덕정은 지금의 창경궁 후원에 있다. 이 곳은 근농장과 춘당대가 있는 평지의 동쪽으로, 동궐도에서 보면 관덕정은 서쪽을 향하고 있지만 실제로 남서쪽으로 향을 잡고 있어 지금은 담장에 가려있지만 근농장에서 애런지까지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정자 자체도 다른 곳과 달리 규모가 커서 일반적인 정자와 다른 쓰임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관덕정은 후원 안에서 후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동궐도에 보면 관덕정 주위로 단풍나무가 많이 보이는데, 속중, 정조 그리고 순조가 모두 이 곳의 단풍나무 숲에 대한 시를 적은 것에 미루어 당시의 이곳은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시

화곡(畫鶴)이 울 때 화살은 중심을 맞혔는데.
운하(雲霞) 같은 보장(步障)²⁷⁾은 선림(仙林)을 들렀구나.
삼청(三淸)의 물색(物色)은 원래 어떻게 생겼을까.
즐거이 제공과 더불어 끝없이 취해보누나.

시가 이야기하는 계절은 가을인가, 알 수 없다. 우리는 다만 단풍나무가 주는 이미지를 통해 가을일 것이라는 심증만을 가지게 된다. 관덕(觀德)은 활쏘기를 뜻한다. 기록에 미루어 관덕정이란 활쏘기를 구경하던 정자였을 것이다²⁸⁾. 우리는 첫 구와 둘째 구에서 활쏘기를 하고 있는 정경을 관덕정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데, 이 날은 여느 날과 같은 날은 아니었던 듯 하다. 문제는 그 다음 구에 있다. 시인은 왜 이러한 풍경을 보면서 삼



사진 12 관덕정, 현재 창경궁 후원에 있다

청(三淸)의 물색(物色)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일까? 그러면 삼청이란 무엇인가? 도가에서 그것은 옥청(玉淸), 상청(上淸), 태청(太淸)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신선이 산다는 궁의 이름이다. 그렇다면 시인은 이 궁을 보고 싶다는 의미였을까, 아니면 관덕정에서 바라보는 창덕궁의 모습을 보면서 삼청의 궁을 생각했던 것일까.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단지 시인은 보장이 쳐져 있는 후원에서 관덕을 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 뿐. 그러나 이러한 물음에 대해 시인은 답하지 않고 단지 '끝없이 취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물음과 대담없는 행동 사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경관은 보이는 그대로의 풍경 또는 어떤 객관적인 바라봄으로서 경관이 아니라 바로 온 몸으로 느끼는 경관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바라보는 풍경은 그것 자체의 이름 다음의 의미를 넘어서는 무엇 - 여기서는 '삼청'이라는 볼 수 없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빛깔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처럼 - 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이는 것 넘어의 것을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그냥 우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아닌 다른 세계에 스스로를 놓았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시인은 슬



사진 13 관덕정에서 바라본 춘당지

이라는 하나의 매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9. 영화시사(映花試士)

1) 공간

영화당은 후원의 다른 건물과는 다르게 높은 기단 위에 세워진 건물로, 그 권위적인 모습에서 건물의 쓰임을 엿볼 수 있다. 주변의 모습은 뒤쪽의 방지인 부용지를 제외하고 정조 연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당의 앞쪽에 커다란 방지가 없어진 것을 제외하면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다. 영화당 앞쪽에 마당이 있어 과거나 습견과 같은 대규모의 행사가 가능한 공간이고, 왕은 이러한 행사를 관람하고는 했다. 여기서 영화당은 앞쪽의 마당과 뒷쪽의 방지 공간을 이어주는 매개 건물인 동시에 이 두 공간의 중심 건물이 된다.

2) 시

춘대(春臺)의 서일(瑞日)속에 법가(法駕)가 임어(臨御)하니,

선인장(仙人杖) 아래에 청금(靑衿)들 뿔뿔히 섰네.

시원(試院)의 제공(諸公) 글씨 누가 시험하는가,

올리고 낮춤에 사시로움 없이 한결같이야지.

이 시의 정확한 계절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춘당대가 가지는 어의에서, 또 그것이 시의 처음에 나온 이유로 해서 봄을 떠올리게 됨은 어쩔 수 없다. 이 상서로운 봄날 임금이 탄 가마(法駕)가 영화당에 도착하고, 그 아래로 과거를 보기 위해 각지에서 몰려온 푸른 깃의 옷을 입은 학생(靑衿)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여기서 유난히 높은 기단 위에 세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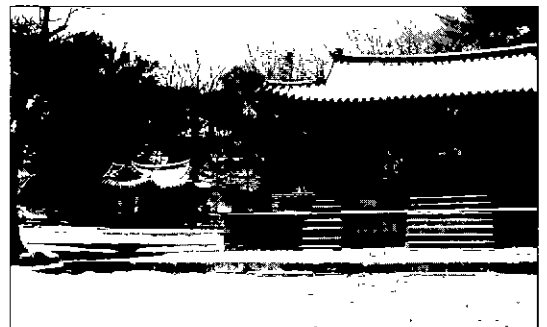


사진 14 영화당

져 있는 있는 의형적인 모습과 거기서 이루어졌던 행사를 통해서 영화당이 가지고 있는 경관은 다른 곳과는 다른 경관을 가지게 된다. 시는 과거라는 특별한 행사의 정경과 시험과 결과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한 묘사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당시에 과거라는 것이 개인에게 갖게되는 사회적인 가치나 그 상징적인 의미²⁹⁾뿐 아니라 왕에게 있어서도 숨어있던 인재들을 뽑음으로 해서 좀 더 나은 통치를 바라는 임금의 열망이 상호 교차하는 상징적인 경관인 것이다.

10. 능허모설(凌虛暮靄)

1) 공간

능허정은 후원의 북서쪽, 제일 높은 봉우리의 그루터기에 세워진 정자이다. 산의 정상에서 조금 내려오는 남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후원의 모습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다. 동궐도에서 보이는 능허정 역시 후원의 깊숙한 산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능허정의 위치가 지금까지의 십경시의 장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후원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적 자리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치는 또한 보여지는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띠는데, 숙종의 '척녀당사영'에서 '우뚝 솟은 능허각은, 아스라하기 작은 바위와 같네'라는 구절에 보이듯 내적인 시점 뿐 아니라 외부에서 보이는 시각적 요소로서의 가치 또한 중요하게 된다. 하물며 그것이 자연과 어울리는 것이라면.

2) 시

세색(叢色)은 높다랗고 해는 저물려 하는데,
 평평 쏟아지는 경설(輕雪) 예쁘기도 하구나,
 잠깐 사이 산과 들에 뿌리고 지나가니,
 경수(瓊樹)와 기화(琪花)가 앞뒤로 감쌌네.

시가 이야기하는 계절은 겨울이다. 먼저 제목으로부터 하나의 밑그림을 그려보자. '능허모설'은 '능허정의 저녁눈' 쯤으로 번역이 되겠지만, 여기서 '능허(凌虛)'라는 낱말이 그려내고 있는 배경으로서 풍경은 한 겨울에 얼음이 불쭉불쭉 올라와 있는 텅 비어 있는 구릉과



사진 15. 능허정

나머지 공간을 메우고 있는 빈 하늘이다³⁰⁾. 이 삭막하고, 쓸쓸한 풍경은 앙상히 드러나는 산들의 가파름 그리고 뉘엿지기 시작한 저물녘의 어둠으로 더 짙은 겨울 빛깔을 만들어내고 있다. 바로 그 순간, 이 허허롭기만 풍경 속으로 눈이 흩뿌리기 시작한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찰라의 순간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그 잠깐 사이의 즐거움을 어디에 비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눈이 내린 후원을 내려다보니 천지가 하얗게 변해 있다. 바로 그 순간, 지천으로 눈꽃을 피우고 있는 풍경을 시인은 보았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능허라는 허허로운 겨울 풍경 - 정자의 기둥과 지붕이 만들어내는 사각의 틀과 현판 (그림의 제목 같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앙상한 나무와 산 - 으로부터 눈꽃이 사태가 난, 자연이 저 스스로 겨울 동경을 만들어 내는 일련의 과정을 보게된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이 숨을 죽여버린 쓸쓸한 계절에 숨어 있는 자연의 역동성으로 능허정이 가지고 있는 풍경이란 그 낱말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풍경 - 우리가 처음 시를 읽을 때 그려보던 밑그림으로서 풍경 - 이 아니라 그 낱말이 담아내고 있는 숨어



사진 16. 능허정에 바라본 풍경

있는 경관의 의미를 포함해서 그려보아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머무는 것이 그 말이 내포하는 여기치 못하는 반어법의 경관을 보아야 한다.

III. 상림십경의 장소가 가지는 공간의 열개와 특징

후원의 공간은 근농장에서 시작해 ऐ련지까지 너른 평지를 이루고 있고, 그 뒤로 산이 둘러싸여 있다. 평지의 남쪽인 창경궁의 담장 쪽으로 근농장과 관공각이 있고, 그 위로 몇 개의 방지가 만들어져 있다. 이 평지를 바라보는 자리에 관덕정이 있고, 이 평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과 능선이 이어지면서 계곡을 형성해 여기에 부용지, ऐ련지, 반월지가 만들어졌다. 이 각각의 공간은 낮은 산과 능선에 의해 모두 'ㄷ'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각 공간을 조망하는 위치에 정자들이 위치해 있다. 소요정이 있는 옥류천 계곡은 오솔길을 따라 능선을 넘어서서 생기는 또 다른 계류에 형성되어 있고, 능허정은 이 외각에 있게 된다. 후원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바라보는 그루터에 정자가 위치해 있어, 이 각각의 공간은 그 나름대로 하나의 온전한 공간을 형성하며, 이 공간들이 모여 후원의 전체 공간이 된다.

후원 내에 십경의 위치가 가지는 공간적 특징으로, 먼저 상림십경의 장소는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 있지 않고, 후원 전체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다. 이 각각의 장소는 정자 또는 담을 중심으로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의 공간 구성으로 볼 때, 십경시의 정자는 각각의 공간에서 중심이 되는 곳에서 비껴나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림십경이 쓰여지던 바로 그 당시의 공간으로 재구성 되었을 때 십경의 장소는 정자가 가지는 시각적 측면인 조망점으로서 의미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심이 되는 곳이다. 이러한 십경의 장소는 두 가지 형태의 공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담장이나 지형에 의해 온전히 둘러싸여져진 공간과 다른 하나는 외부로 향하여 완전히 열려져 있는 공간이다. 이 둘은 그러나 분리되어서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부용지 지역에 대한 회우정, ऐ련지 지역에 대한 망춘정, 반월지 지역에 대한

청심정 그리고 후원 전체에 대한 능허정이 거기에 해당한다. 여기서 정자와 외부 환경인 자연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자라는 인식적 공간과 외부 공간인 자연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만나기보다는 정자를 중심으로 자연 속으로, 혹은 자연이 정자 안으로 무시로 들어오는 상호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체 후원의 공간 속에 이 각각의 공간은 하나의 시각적인 리듬 뿐 아니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리듬을 동시에 만들어낸다. 개별적인 공간이 그것만으로도 완결된 공간 구성을 이루면서, 서로 다른 규모와 기능의 공간들이 연결되고, 상반되는 시점이 존재함으로써 공간은 시각적인 역동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을 후원이 만들어졌던 전체의 시간 속에 놓고 보면, 그제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했던 역동적인 공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IV. 정조의 상림십경이 얘기하는 후원의 경관

정조의 상림십경에서 나타나는 경관은 오늘날 '경관' 또는 '경관적'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폭넓은 양상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단지 보여지는 - 시각에 관계하는 - 한 측면으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다양한 양상을 시가 담고 있다는 말이다.

먼저, 상림십경에서 이야기하는 경관의 재료로서 주위의 풍경이 있지만, 이러한 주위의 풍경은 단순히 정자에서 바라보는 풍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경관 자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천황춘만의 '봄 풍경'이나 능허모실의 '겨울 풍경'이 있지만, 관풍춘경의 '모내기 장면'이나, 영화시사의 '췌시' 장면과 같이 행위 자체가 가지는 의의나 상징성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장면이 중요한 경관의 요소로 그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관의 모습은 단지 외부에 존재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청심제월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음 속의 맑은 풍경' 또한 주요한 경관적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관을 '안방에서 그윽함에 가려 (堂與蔽幽)'(청심제월) 있지

말고 '한 하늘 아래 (一天之下)'(청심제월) 나아가 '마음껏 돌아보자 (漫遊)'(어수범주)거나, '끝없이 취해보자 (醉不禁)'(관덕풍립)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풍경이 돌이 아니고 바로 하나라는 인식 속에서 내가 바로 그것이 되는 것 또는 바라보는 대상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두지 않거나 자신이 바로 승경이 되어 들어감으로 해서 경관을 즐기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모습은 정조가 쓴 또 다른 글에도 잘 나타난다²¹⁾. 이런 승경으로부터 얻게 되는 인식적인 성취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면서도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고 (濠梁自有觀魚)'(소요유상), '어진 하늘이 사람을 키워내며 (仁天位育)'(망춘문맹), '나라의 살림살이에 힘쓰며 (帝王勤稼穡)'(관풍춘경), '사람을 가림에 반듯해야 하고 (升降無私一乃心)'(영화시사),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을 때 '궁궐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三清物色元如許)'(관덕풍립)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상림십경의 경관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네 개의 계절이 나온다²²⁾. 이러한 계절은 단어 하나 또는 계절을 암시하는 지명에 붙어서 나오지만, 그것은 각각의 시가 만들어내는 풍경의 시작이자, 시의 배경을 형성하면서 시가 가지는 고유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계절의 배경은 하나의 공간에 하나의 풍경만을 그리고 있지만, 이것이 모여서 만드는 열 개의 풍경은 사계절 모두를 담고 있다. 그런데 봄에서 시작해서 겨울로 이어지는 시가 내포한 계절이란 바로 일년을 주기로 순환하고 있는 시간의 흐름이다. 시간이란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이 계절로 나타날 때 그것은 순환하는 것이고 보면 십경의 경관은 매년 유사한 경관을 그 자리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과는 또 다르게, 앞서 공간의 열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각각의 장소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외부를 향한 시점의 변화가 있고, 후원의 전면에서 더 깊숙한 곳으로 이동하는 공간의 변화가 있다. 이것은 어느 한 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후원 안에서 끊임없는 움직임을 유발하고, 이러한 움직임은 후원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낸다. 십경의 경관은 각각의 장소가 가지는 - 공간이 만드는 틀과 시간이 만드는 배경으로 - 시간의 축

과 공간의 축이라는 두 개의 흐름을 가지고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두 개의 축이 만들어내는 상림십경은 사계절의 변화라는 긴 호흡 속에 시간이라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변화의 가능성과 후원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시점의 이동과 그에 따른 시계(視界)의 변화가 시줄과 날줄로 짜여지면서 한 폭의 역동적인 경관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된다.

정조에 의해 '상림십경'이라는 완전한 한 다발의 경관이 만들어지기까지 망춘정을 제외하고 이 각각의 장소에 대한 경관적 요소들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되물림되고 있었다. 이러한 한 장소가 가지는 고유한 경관의 계승 - 수직적 시간의 축이 만들어내는 역사적 경관 - 과 정조 자신에 의해 새로운 해석에 의한 경관 인식 - 개인이 가지게 되는 경관에 대한 개별적 인식인 주관적 경관 - 을 십경이라는 당시의 보편적 경관 보기의 양식 - 수평적 시간의 축이라 할 수 있는 보편적 경관 - 으로 묶어냄으로써 후원은 정원의 단순한 물리적 형태의 완성만이 아니라 인식적인 측면과 그것의 재현이라는 완전한 모습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조심스럽게 한국 정원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하나의 의문으로 남겨두기로 하자.

V. 남겨진 문제

처음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야기는 경관에 대한 것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경관이 곧 텍스트라는 이야기인가? 분명 그것은 어떤 등가의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좀더 넓은 의미에서 텍스트를 놓아두기로 하자. 그러나 경관을 해석하는 한 방식으로서 텍스트론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듯 하다. 그것은 이 글이 텍스트를 읽은 하나의 텍스트로서 가치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시각에서 그러하지만, 그것 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읽혀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 정원이라는 공간을 이해하는 방법론으로 - 가능한 것인가, 에 대한 것에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덕궁 후원이 과연 어떻게 보이는가, 어떻게 현재의 시간으로 우리는 다시 불러올 수 있는가, 에 있다. 과거

의 것이 단지 과거의 것으로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 지금 후원을 바라봐야 한다. 그것이 어떠한 방식인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입장들과 해석이 생산된 이후에 다시 시작해도 될 듯 하다. 이 작업은 후원의 의미 체계를 세우거나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 뿐 아니라 후원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하나의 유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또 다른 정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재적 가치를 두는데 있다³³⁾. 굳이 그것이 텍스트로 불리우지 않아도 그것은 문제가 없다, 후원이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공간으로 존재한다면.

- 주1. 맹상 주브, 하태환 옮김 (1994) *롤랑 바르트*, 민음사, 66쪽.
- 주2. 츠베탕 토도로프, 최현무 옮김, (1987) *바흐전* : 문학사 회학과 대화이론, 까치, 266쪽.
- 주3. 바흐전 : 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앞의 책, 44쪽.
- 주4. 움베르토 에코, 손윤택 옮김(1997) *해석이란 무엇인가*, 열린책들, 86쪽. '텍스트는 정당한 해석을 위한 관계를 설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 해석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순환적 과정에서 형성해 가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때 해석의 정당성 여부는 그것이 만들어 내는 결과물에 의해서 판단된다. 저 낡은, 그러나 아직도 유효한 해석적 순환을 이런 식으로 정의해도 나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 주5. 현재의 창덕궁 후원은 창경궁 후원과 담장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동궐도에서 보이듯 창덕궁 후원과 창경궁 후원은 담장 없이 하나의 공간이었다. 또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창경궁 후원과 통해있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민족문화추진회 (1965)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7권 제1권, 경인문화사, 1969, 91쪽).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의 창경궁 후원의 공간까지 포함해 창덕궁 후원의 공간으로 그 범위를 정했다.
- 주6. 후원에 관한 시와 기문은 주로 궁궐지에 있으며, 또한 정조의 문집인 *홍제전서*에서 일부 찾아볼 수 있다 궁궐지의 원편은 숙종 후기, 영조 초년에 편찬된 것으로 우리가 아는 궁궐지는 *хин중 연간* (1834, 11 - 1849, 06)의 서술로 추정된다. 궁궐지는 도성지, 경복궁지, 창덕궁지, 창경궁지, 경희궁지로 각 1책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과 위치, 연혁, 왕과 왕비에 관한 사실, 사건 그리고 기문과 전명. 시문등이 실려 있다. 참고로 한 책은 서울학 번역총서 1 : 궁궐지 I - 경복궁, 창덕궁, 서울, 서울학연구원, 1994. *홍제전서*(弘濟全書)는 정조23년(1799) 처음 간행되었고, 순조14년(1814) 두 번째로 간행되었다. 참고로 한 책은 *홍제전서*(영인본), 서울, 대학사, 1978. 여기서 국역 번역은 궁궐지의 것을 참고로 했다.
- 주7. 그림 자료로는 '동궐도(그림 4)'의 '동궐도형 평면(그림 2)', 그리고 '규장각도(그림 5)'가 있다. 동궐도는 19세기 초, 궁중의 도화서에서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계획의 일종으로 273×36.5cm의 16개의 화점으로 되어있

- 며, 모두 펼쳤을 때 273×584cm 이다.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과 동아대학교 박물관, 두 곳에 소장되어 있다. 동궐도형 평면은 1873년부터 출판지가 만들어진 1907년 사이에 그려진 평면으로 존덕지가 변형된 모습과 아적 근농장등 바깥이 이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후원의 근세들어서의 빈화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을 뿐 아니라 동궐도와 오늘날의 모습 사이에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도면이다. 동궐도(1991),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서울 규장각도는 김홍도의 그림으로 정조가 임금이 오른 해인 1776년 규장각을 짓고 나서 그린 부용지 주변의 모습이 다. 그림에서 보면 화계 위로 규장각인 주합루와 원편의 서향각이 보이고 그 위로 회우정이 보인다. 그러나 제월 광종관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 밑으로 영화당과 방지가 보이는데, 지금의 부용정이 있는 자리의 정자는 오늘날과 모습이 다른 백수정의 모습이며, 정자와 가운데 섬을 잇는 다리가 보인다. 한영우(1998),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서울, 호행출판사, 82쪽.
- 주8. 정조, *홍제전서*, 5권 제1권, 서울, 규장각, 1979, 20쪽. "침림십경(上林十景)"은 1767년(영조연간)에 쓰여진 열편으로 구성된 시로, 같은 제목으로 *홍제전서* 1권에 정조의 동궁시설의 글을 모아놓은 춘저록편에 기록되어 있다. 궁궐지에는 이 시들이 각각의 전각에 따라 나뉘어져 실려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창덕궁 후원을 지칭하는 말로 '후원'이라는 단어 외에 상림(上林)이라는 말 또한 쓴 것이 보이는데 정조 또한 후원에 대한 십경시를 쓰면서 그 제목을 '상림십경(上林十景)'으로 했다.
- 주9. 영조, '관공각에서 원량과 더불어 벼 심는 것을 구경하다', 궁궐지, 앞의 책, 163쪽.
- 주10. 순조, '관공각 벼베기', 궁궐지, 앞의 책, 163쪽.
- 주11. 숙종, '관공각시', 궁궐지, 앞의 책, 162쪽.
- 주12. 영조, '송으로써 관공각의 어시운을 경차하고, 풍년을 기원하다', 궁궐지, 앞의 책, 162-163쪽.
- 주13. 궁궐지에서 각지의 장소를 언급할 때는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곳과 제일 가까운 건물이나 전각을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건물의 위치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궁궐지 I, 앞의 책, 142쪽. '망춘정(望春亭)은 존덕정 북쪽 [지금은 없다] ...'
- 주14. '친향각은 척녀동 서북쪽(척녀동-애련정 북쪽)에 있는데 효종4년 1653 개사에 세웠다.' 궁궐지 I, 앞의 책, 142쪽.
- 주15. '어수당 앞에 이르러 신하들에게 말에서 내리라고 명하였다. 친향각에 여좌를 설치하였다. 대신과 각신에게 술빙과 안주 그릇을 하사하면서 ...', 증보편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3집, 정조 19년(신유), "내원에서 꽃구경을 하고 뒤시질을 하다."
- 주16. 미불(米苮, 1052-1109), 중국 송나라 시대의 화가
- 주17. 정조, '밤에 부용정 소루에 오르다 (夜發芙蓉亭小樓)', 궁궐지, 앞의 책, 116쪽. '...경 등은 태액(太液, 부용지)에서 배를 띄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 중신 이문원이 말이 떨어지기가 빠르게 배에 오르고 그 뒤를 따르는 자가 열아홉명이었다 . . .'
- 주18. 신량(新凉) : 첫 가을의 서늘한 기운
- 주19. 안동립 역주(1969) *정자*, 외편 제17 추수 18번째 이야기,

- 현암사, 개정판2, 정자와 해자가 함께 호수의 징점들을 노닐면서 장자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다고 말하고 해자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고 하는 이야기.
- 주20. 왕희지,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그는 자신의 정자인 난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를 짓고는 했는데, 이 난정의 곡수연도 유명하다
- 주21. '구속이 없는 절대의 자유로운 정자에서 노니는 것을 '소요유'라 한다.', 장자, 앞의 책, 25쪽., 정조는 그의 또 다른 글인 '소요정기'에서 장자의 이러한 고사와는 상관 없이 그가 왜 정자의 이름을 소요점으로 명명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고 있다.
- 주22. 김윤식(1997) 동양정신과의 감각적 만남, 고려대학교출판부, 79-80 쪽. 문학평론가인 김윤식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후진국인 조선조의 문화가 그나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중화 문화의 높은 수준에 스스로를 연결시켰던 때문이다. 자기를 비쳐볼 수 있는 거울이 중국이었다. 그 중국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보편성 자체였다. 중화사상이란 중국의 것이되 보편성 자체라는 사실을 모두가 숙지하고 있었다. 그런 지식의 인식 체계가 거기 작동하고 있었던 만큼 정승강이 "서호 넷 주인"을 금강산에다 불러 옮겨 놓았을 때 그는 스스로를 저 송나라 문화와 같은 수준에 놓았음이 분명해질 터이다 ...', 우리는 여기서 당시의 조선조 지식인 가지고 있던 중국과 관련된 인식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조의 인식 또한 이러한 당시의 보편적 인식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정조는 소요정의 경관을 보편적이면서, 가장 뛰어난 아름다움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주23. 주석 7, 참조
- 주24. 궁궐지, 앞의 책, '... 숙종 33년 (1707) 정해에 지어졌는데 지금의 부용경이다.', 120쪽. 백수제는 정조연간 1792년 개축을 하고, 부용정이라 이름도 바꾸었다.
- 주25. 홍재전서, 앞의 책, 20쪽 '時透春來好雨滋'
- 주26. 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숙종이 지은 '희우정명서(喜雨亭并序)'에 자세히 나와있다. 여기서 숙종은 먼저 취향정 승경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다음과 같이 정자의 이름을 바꾸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궁궐지, 앞의 책, 113쪽. '... 오호라, 보리도 없고, 내도 없이 죽음이 가까워지면 비록 정자에서 한가로이 거닐려(假遊)하려한들 그러지 못할 바가 있으니 어찌 이 기쁨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정자의 이름을 바꾸어 달기를 희우(喜雨)라 하고 ...'
- 주27. 보장 대나무를 세워서 친 장막(帳幕)
- 주28. 궁궐지, 앞의 책, 119쪽. '정자를 지었는데 이름하여 관풍(觀豐)이고, 그 북쪽에 단을 쌓았는데 이름하여 춘당(春塘)이다. 앞에는 월부 남짓한 못이 있어 백연담(白蓮潭)이고 못에서 장원봉(狀元峰)까지는 수백보가 뿔직할데 여기가 사후(射鵰)하는 장소이다.', 궁궐지, 154쪽. 관덕정은 이러한 장원봉의 북쪽에 있다. 또 '... 이윽고 춘당대에서 활을 쓰고 부용정의 앞 못과 주위의 못에서 낚시질을 하였는데 ...'
- 주29. 정기호, 자연과 인간의식과의 관계로 본 "취락경관에서 내력 의미"에 관하여, 한국조경학회지, 제 14권, 권2,

- 1986, 10, 20쪽. 주5. "부용정의 모습에서 방지의 공간적 상황을 만물의 본질과 선이 닿고 있는 한 존재 (인간) 성을 떠올려보고, 과거시험을 보는 마당 - 만물이 소생하는 바탕 또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장소일 수 있는 춘당대와 거기서 선택된 자가 오르게 되는 또는 어떤 결실의 상징일 수 있는 마루로서의 영화당, 이 양 공간간에 한 존재를 개입시켜 볼 때 한 인간의 이성적인 상으로서의 한 단편을 또는 이상 그 자체를 상징한 한 단편을 경우에 따라서는 떠올려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영화당과 춘당대라는 공간의 상징적 의미는 이상의 글에서도 잘 알 수 있다.
- 주30. 한한대사전, 앞의 책, 1811쪽 '능(凌), 冫(빙)+夨(능). '冫'은 얼음의 상징. '夨'은 '언덕에 오르다'의 뜻. 얼음이 언덕처럼 볼출 올라가서 열다의 뜻을 나타냄.', 272쪽. '허(虛), 北+虎 '구(北)'는 '구(丘)'와 동자(同字)로서, '언덕'의 뜻. '호(虎)'는 '거(巨)'와 통하여, '크다'의 뜻. 큰 언덕을 이르는데, 전하여, '공허하다'의 뜻도 나타냄. [...] ㉓ 하늘허 '허(虛)', '능허(凌虛)', '...'
- 주31. 정조, "소요정기(逍遙亭記)", 궁궐지, 앞의 책, 153쪽. '... 승경을 드러내어 사람으로 하여금 셋은 듯이 진속에서 벗어나려는 상념을 갖게 하는데 이는 또 땅이 소요할 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이 여기 있지 않다면 비록 땅이 있다한들 어떻게 소요하며 즐길 것인가? 지경과 마음이 함께 비고 사람과 물(物)이 서로 맞아 천양 사이에 무슨 골간이 또 있는 줄을 모름 정도가 되어야만 나의 마음의 즐거움을 이곳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니 ...',
- 주32. 십경사에서 계절을 나타내는 낱말. 봄 - 춘경(春景), 망춘(望春), 춘풍(春風), 춘대(春臺), 여름 - 연꽃(蓮) 향기, 가을 - 신량(新涼), 달(月), 풍림(楓林), 겨울 - 눈(雪).
- 주33. '해석이란 무엇인가, 답변-에코, 앞의 책, 197-198쪽. '세계에 대한 모든 묘사(그것이 과학의 법칙이든 소설이든)는, 분명 그 확실성이나 불확실성의 정도에 제각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열린 해석의 가능성을 지닌 하나의 책이다.'

인용문헌

1. 궁궐지 I - 정복궁, 창덕궁(1994) 서울·서울학연구소.
2. 김동욱(1996, 11) 조선 정조조의 창덕궁 건물 구성의 변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11호 통권97호, 서울.
3. 김윤식(1997) 동양정신과의 감각적 만남,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4. 동궐도(1991) 서울.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5. 민족문화추진회(1969) 신증동국여지승람 7권, 서울: 경인문화사.
6. 맹상 주브, 하태환 옮김 (1994) 롤랑 바르트, 서울: 민음사.
7. 안동림 역주(1993) 장자(莊子) 서울. 현암사.
8. 움베르토 에코, 손윤희 옮김(1997) 해석이란 무엇인가. 열린책.

9. 이병주(1987) 한국 한시(漢詩)의 이해. 서울: 민음사.
10. 한국조경학회(1989) 창덕궁 정비계획 - 수목 및 식생을 중심으로 서울.
11. 이용범, 천득엽, 임영배(1994, 6) '경(景)'으로 본 정자건축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0권 6호 통권68호 서울
12. 정기호(1986) 자연과 인간의식과의 관계로 본 "촌락경관에서의 내적의미"에 관하여. 한국조경학회지. 제14권 2호 서울.
13. 정조(1799-정조23년, 1814-순조14년, 영인본 1978) 홍재전서(弘齋全書), 문화재관리국. 서울: 대학사.
14.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1980) 한국의 고궁 서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5. 정재훈, 장경호, 신영훈(1986) 창덕궁 - 한국의 고궁2. 서울: 열화당.
16. 정재훈, 조선왕궁의 원유. 서울.
17. 츠베탕 토도로프, 최현무 옮김(1987) 바호젠. 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서울: 까치.
18. 한영우(1998)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서울: 효행출판사.
19.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3집.